



◁ 감은사지 금당터에서 문무왕에 얽힌 전설을 설명하는 이근직선생(가운데). 동해물이 되어 불발을 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을 유언한 문무왕이 용으로 드나들었다는 금당 밑의 빈 공간과 작은 구멍이 실재한다.



◁ 황룡사지 9층목탑과 함께 신라 삼보 중 2보였던 장유존사의 대좌석과 주춧돌.

신라인의 서원 오늘도 생생히...

8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주제는 '신라인의 바람(願) 바람(風)'. 불상과 탑, 사찰로 국토 곳곳을 누볐던 신라인들은 이땅을 그대로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거셴다. 45명의 테마여행객들은 23일 밤길을 달려 경주로 향했다. 정일 새벽에 맞는 예물 소리가 유난히 청명했다. 불국토는 어디인가. 청명한 마음, 지비로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아닌가. <편집자 주>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8월 황룡사지·감은사지
"신라인의 바람(願) 바람(風)"



◁ 답사객들이 공굴사 마애여래불 좌상(보물 581호)에 참배하고 있다.

산사의 적막을 깨운 열불로 장엄된 기림사(주지 법일) 삼천불전에는 새벽 입에도 입사생을 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열기를 뽐내고 있었다. 기림사(祇林寺)의 이름은 부처님 당시 회대의 사찰이며,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설법했던 기림정사에서 유래되었다. 광복 전까지만 해도 31본산의 하나로 불국사 등 6개의 말사를 거느렸던 거찰이었지만, 지금은 불국사의 말사로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물씬했다.

기림정사서 기림사 유래

기림사에는 유서깊은 사찰에 걸맞게 많은 성보문화재가 박물관 등에 보존되고 있었다. 기림사의 본전으로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창건되어 조선 인조 7년(1629)에 중수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전인 대적광전(보물 833호), 16세기 불상으로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보물 958호), 비로자나불상 속에 봉안되어 있던 비로자나불 복장전적(보물 959호), 조성된 진흙으로 속을 만들어 삼베를 감고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 옷칠을 하고 다시 금을 입힌 관세음보살반가상으로 조선조 연산군 7년(1501)에 조성

된 우리나라 유일의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자세한 강의를 이어졌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군들의 지휘본부로 사용된 진남루(鎭南樓, 문화재자료 251호)와 나방, 꼭비 등에 대한 설명에서는 당시의 처절했던 격전을 회상하며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감은사·대왕암·황룡사지 호국불교의 정수 골굴사 마애불 아침미소 보며 통일발원

기림사 참배후 천연석굴사원이자 선무도 총본산인 골굴사(회주 적운)에 도착했다. 수십미터 높이의 거대한 석회암에 12곳의 동굴이 나 있고, 가장 높은 암벽에 돌출해있어 조각한 마애불상(보물 581호)이 아슬한 미소를 띠어 더욱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준다. 적운스님의 상좌 관오스님이 답사팀을 위해 도반들과 함께 선무도 시범을 보였다. 직장인 한영숙(27)씨는 "많은 답사를 다녀보았지만 살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기는 처음이다"며 선무도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인도에서부터 전해된 선무도는 신라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한 무술이

자 깨달음을 향한 형상(形), 회암들은 선무도를 통해 신라인의 멋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도착한 곳은 감포의 대왕암. 문무대왕의 유언에 따라 조성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중릉(水陵)이다. 분황사 원효스님 체취 가득 국왕으로서 일신을 화장하여 호국·호법의 이념을 구현한 문무대왕에 얽힌 갖가지 설화들이 천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감동으로 다가왔다. 문무왕이 용으로 변해 드나들었다는 금당지하의 공간과 동쪽으로 난 작은 구멍이 역사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듯해 경이로움을 더했다.

천 원효스님의 사자후가 들려는듯... 원효스님의 체취는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 황룡사와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분황사(주지 풍수)에도 가득했다. 고려 숙종 때 원효스님을 기리며 세운 화랑국사비의 비자와 추사 김정희의 사체,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모전석탑(국보 30호)의 고전적인 분위기가 신라불교의 무게를 가능케 했다. 분황사는 매년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분황사와 경주시 앞원에서 '원효문화대제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라인들의 서원과 맺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경주 곳곳에 남아 있어요. 1년 내내 답사를 해야 어느정도 감이 잡히지요." 다음 답사를 기억하는 경주 출신 이근직선생의 마무리 말이 신라인의 긍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다음 답사를 기억하는 경주 출신 이근직선생의 마무리 말이 신라인의 긍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글=김재경 사진=고영매 기자



◁ 기림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답사팀. 오른쪽 불상이 우리나라 유일의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이근직 (경주대 겸사)

전문가 안내

모든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은 당대인들의 정신성의 결정체다. 신라의 문화유산은 이런 특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감은사지와 대왕암, 황룡사지 등은 신라 불국토성을 바탕으로 한 호국불교사상의 전형적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8세기 통일신라의 사상과 예술은 호국불교사상의 기초위에 꽃을 피웠다. 원광 자장 원효 의상과 같은 뛰어난 정신적 지도자를 배출한 신라의 불교사상은 삼국통일을 이루는 정신적 토양과 자존심이 되어, 신라문화 창조에 원동력이 되었다. 삼국통일의 영주 문무대왕과 연관된 동해구(東海口)의 3대유적인 대왕암과 이근대, 감은사지는 시대와 장소, 인물의 만남에서 완성된 신라정신의 중핵을 이루는 지역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대왕이 죽고 그 유자를 따라 동해구의 대석상(大石上)에서 장사지냈는데 문무대왕이 용이 되었다고 전한다. 또 문무대왕이 해병을 진압하기 위해 동해만에 진국사(鎭國寺)란 절을 짓기 시작

감은사 쌍탑 한국석탑 전형양식 "기림불 황룡사지 진선" 기록 국보 분황사모전탑 신라最古

했다. 그러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용이 죽자 신분이 바로 이듬해 절을 완공하고, 부왕의 은혜에 감사하여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 이 절의 금당아래에는 굴을 파서 바다의 용이 직접 이곳에 들어와 수도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은사지 발굴에서 직접 확인되기도 했다. 감은사지에는, 문무대왕의 비원을 간직한 동·서 3층석탑이 우뚝 솟아있다. 13.4m란 규모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한국석탑의 전형양식을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탑이다. 사찰건립의 발원에서부터 거대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신라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감은사지 쌍탑은 호국불교사상의 결정체이면서 신라 삼국통일의 기념비적 대탑이라 할 수 있다. 감은사의 쌍탑이 진국사(鎭國寺)의 의미를 지녔다면, 황룡사 9층탑은 주변의 아늑함을 향해받았다는 더욱 철저한 호국지를 담고 있다. 특히 황룡사지는 '이 땅이 본래부터 불국토'라는 신라 불국토설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황룡사 금당위에 가섭불이 연좌하던 돌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도의 서쪽(西)에 상대되는 동쪽사(東竺寺)란 사찰명을 지을 정도로 문화적인 자존이 높았다. 신라의 호국불교사상은 이같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확립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 골동품형
-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 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 대구 (063)768-8008 대전 (042)625-1080 광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 진주 (0591)747-0106 예천 (0458)33-5097 포항 (0662)252-7749 미산·황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